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포로(억류자)의 가치에 관한 연구

- 포로 생존의 필요성과 행동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 대학원

안보전략 학과

국제안보 전공

임 현 수

석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회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포로(억류자)의 가치에 관한 연구

– 포로 생존의 필요성과 행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alue of prisoner(detainee)
in war and conflict areas

–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action of captivity survival –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 대학원
안보전략 학과
국제안보 전공
임 현 수

석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회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포로(억류자)의 가치에 관한 연구

- 포로 생존의 필요성과 행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alue of prisoner(detainee)
in war and conflict areas

-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action of captivity survival -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 대학원
안보전략 학과
국제안보 전공
임 현 수

임현수의 안보전략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HANYA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포로(억류자)의 가치에 관한 연구 – 포로 생존의 필요성과 행동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안보전략 학과
국제안보 전공
임 현 수

본 논문은 전시 특수 부대원이 적지 종심에 침투하여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임무수행 중 포로가 되었을 경우 포로수용소 내에서의 생리적·심리적 이론을 배경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행동을 통하여 석방 및 탈출 시 까지 생존율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초 포로가 되었을 경우 생리적 반응 즉, 투쟁 및 도피 반응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대응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교도관에게 세뇌 당하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현상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오히려 그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비 인권적 포로대우로 수많은 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유린 상황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시 북한이 제네바 3협약에 의거한 포로에 대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그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군 특수부대는 포로가 되었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응 할 수 있는 훈련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훈련은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로 시 행동 간 필요한 생리학 및 심리학적 이론을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야 한다.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명상, 운동, 호흡법 등을 통해 개인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한 여

건조성을 위해 의사소통을 통해 교도관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 포로수용소의 교도관에 의한 북한 사상을 세뇌 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가서 그들을 옹호하는 현상 즉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평소에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

포로 시 행동에 대한 방법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개인이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개인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포로 시 행동에 대한 각국의 공개된 자료 및 연구가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포로가 되었을 경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투쟁과 도피 반응의 원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교도관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탈출 및 석방 때까지 생존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존하고, 포로교환에서의 유리한 상황조성 및 탈출 또는 석방 후 적국의 실상을 알림으로서 적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 시켜 전시 유리한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포로, 특수부대, 스트레스, 포로수용소, 포로 시 행동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II. 이론적 고찰	7
2.1. 포로의 정의 및 개념	7
2.2. 포로의 대우	8
2.3. 포로 시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	9
2.4. 우리나라의 포로 시 행동수칙	10
2.5. 포로 시 행동에 필요한 이론	12
2.5.1. 생리학적 이론	12
2.5.2. 심리학적 이론	16
III. 포로 시 행동에 대한 사례 분석	29
3.1. 주요 국가의 “포로 시 행동” 훈련	29
3.2. 북한의 포로·정치범 수용소 관리 사례 분석	40
IV. 포로 시 스트레스 극복 방법	52
4.1. 스트레스 극복 원리	52
4.2. 스트레스 극복 요령	56
4.3. 한국전쟁 중 스트레스 극복 사례	61
V. 결 론	64
5.1. 결론요약	64
5.2. 연구의 한계점	65
5.3. 향후 연구방향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0

< 표 목차 >

< 표 - 1 > 포로의 부류	7
< 표 - 2 > 대한민국 국군 군진수칙	11
< 표 - 3 > 스톡홀름 증후군 특징적 증상	22
< 표 - 4 > 한국전쟁 시 북한의 포로수용소 위치와 포로 규모 ...	43
< 표 - 5 > 북한 정치범 수용소 위치 및 규모	47
< 표 - 6 > 스트레스 극복원리	54

< 그림 목차 >

<그림 - 1>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치 및 현황	47
<그림 - 2>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 체계	49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전쟁에서 포로는 인류 전사(戰史)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처럼 여겨져 왔고 실제로 포로가 없었던 전쟁은 없었을 만큼 무력충돌이 발생한 국가 간의 포로는 당연한 전쟁의 산물이 되어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내전으로 인한 분쟁국가에서도 적국 또는 테러 단체들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의 포로는 반드시 전쟁포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언론인, 여행객, 정치인, 군인 등을 포함한 인원들에 대한 억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는 노약자, 여자, 학생, 아이 할 것 없이 납치 하여 억류하고 이를 각 테러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테러 단체들은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이들을 포로처럼 대우하고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국제법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고,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언론이나 UN안보리 결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제적 공감대는 형성 할지 모르나 이를 강제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지속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결과 억류자 발생 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취하는 행동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적대국 및 테러집단의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도 하고, 구출 팀을 보내 구출하기도 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하여 협상하기도 한다.

억류자 구출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에는 군인, 평시에는 파병부대원 및 민간인들도 이러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생존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로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포로의 억류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여 스스로도 석방 될 수 있도록

록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억류 시 필요한 생존의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군인이 전시 포로가 되었을 경우 전쟁이 종료 될 때가 까지 생존해 있어야 한다. 전시에 군인의 생존은 일반적인 인권차원에서의 생존과는 가치가 다르다. 생존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군사적 이익과 국군의 사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익은 자연히 전쟁의 승리 또는 국가 전략적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 포로가 된 후에도 끝까지 생존하여 수용소 탈출을 통하여 적 후방을 교란 시킬 수도 있고, 석방 시 까지 수용소내의 상황을 진술함으로서 종전 후에도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포로 시 제네바협약과 군진수칙에 의거한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대응 방법만을 제시하고 실제 상황에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의 수용소 내에서의 생존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포로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시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의 가치로 평가 되었으면 한다.

본인은 2014년 9월부터 한국의 포로 시 행동에 대해 연구하고 2015년 2월에 스웨덴의 SERE¹⁾ School에서 포로 시 행동에 대한 교육을 참관 하였었다. 교육의 핵심은 전투원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대처 나가는 훈련이었다.

스웨덴 SERE 훈련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북한의 상황을 대입하여 한국군 특수부대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 한 바 있다. 한국군 특수부대원이 포로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포로수용소 생활과 신문과정을 거쳐 탈출 및 석방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이론 및 실습, 의사소통, 정보제공 통제능력, 신문저항, 교도관과의 관계, 북한군 문화를 접목하여 상황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을 부대원들에게 부과하여 스스로 스트레스 극복하고 집단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기획하고 시행하였다. 훈련은 5일간 실시되었고 교육생은 약 60여명으로 매

1) SERE(Survival Evasion Resistance Escape) : 생존, 회피, 저항, 탈출

훈련마다 10명 내외의 인원들로 구성하여 실시를 하였는데 이론 수업으로 저항방법을 가르치고 1일차 실제훈련 실시 결과는 매우 참혹하였다. 과연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적지중심에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포로로 생포되었을 때 적에게 아군의 군사적 비밀을 밝힐지 않고 스트레스를 통제하여 생명을 유지한 채 살아남아 ‘명예롭게 귀환 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들 정도로 포로 시 행동에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무지하였다. 훈련 간 훈련대상자들은 감정적 대응, 무조건적인 반항, 무조건적인 순종 등 포로 시 행동에 필요한 적절한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활동, 의사소통, 정보제공통제능력을 이용한 관계 형성 등 전장감각이 너무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러한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훈련을 하기에 앞서 우리군은 포로 시에 느끼는 공포는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되며 이러한 공포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SERE 훈련은 한국전쟁이 후 미군이 포로로 생포 되었을 때 생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훈련개념이었다. 이러한 훈련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각국의 안보환경과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군은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훈련 방법 개발에 대한 너무나도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1회성으로 종료되어버린 훈련은 체계화 및 발전되지 못 한 채 훈련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단 한명의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또한 이론적 바탕이 되어야 만이 훈련을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구성하고 실시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리학·심리학에서 포로 시 행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과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로(역류)시 생리학 및 심리학적 기초 이론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 능력을 배양하여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특수전부대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그 기초가 되는 연구이다. 즉, 스트레스 유발요인인 공포, 걱정, 부정적인 생각, 절망감, 우울증, 죄책감, 감금, 격리, 언어폭력, 구타, 가혹행위, 고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신체조절, 운동, 명상, 의사소통 등의 방법으로 감소 시켜 북한의 열악한 포로수용소 환경에서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생존율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휴전 상태가 60여 년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은 전시 특수전부대가 적지중심에 침투하여 임무수행 중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는 상황이며 이는 전략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특수전부대가 수행하는 임무는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전쟁의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전략 목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전략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무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작전이 실패 했을 경우 특수전부대원이 포로로 억류되어 적국의 신문에서 정보가 누설된다면 전략적 성과를 달성 할 수 없을 뿐더러 적에게 기밀이 노출되어 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SERE라는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포로 시 행동에 대한 훈련을 인권 문제 또는 훈련의 위험성(심리, 신체적)이 높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이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평시 이러한 훈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적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시에는 훈련을 해보지 못한 군인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자칫 생존 할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태가 초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전시 특수전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포로 시 행동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생리학·심리학적 방법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생리학적 접근은 투쟁과 도피 반응에 의한 스트레스의 발생원인과 극복방법을 제시하였고, 심리학적으로는 스톡홀름 증후군, 리마 증후군, 루시퍼 이펙트의 심리학적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시 북한의 포로수용소 운용 사례 등 실제 사례 결과를 토대로 생리학·심리학 분야에서 인원들의 행동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전시 전투원에 대한 행동에 필요한 부분을 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포로 시 행동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과 이 훈련을 실시하는 국가들의 대응 실태와 배경을 분석하였고, 둘째 한국 전쟁 시 북한군 포로수용소의 위치와 당시 포로들에 대한 대우를 기초로 현재 그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분석하여 비인권적 상황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필요한 행동 요소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개인의 생존 방법으로 포로 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심리학·생리학적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과 극복 방법을 제시하였다. 적국의 교도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이론적 대응방법과 수용소 내 생활 간 개인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실제 훈련 간 인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에서 결론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 2장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포로의 개념과 제네바 협약에 의해 포로의 권리와 대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포로 시 알아야 하는 생리학 및 심리학적 기본 이론을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포로 시 행동’에 대한 주요국가의 훈련 방법과 배경을 통해 포로 시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개념을 설정하여 훈련을 진행하는지까지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며,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수용소

운용실태와 현재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통해 포로들에 대한 비인권적 행위가 한국전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 했으며, 그와 유사한 현재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하여 분석 하였고, 제 4장은 포로(역류)시 개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론 및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생리학·심리학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5장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연구의 한계점과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포로 시 행동 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2.1. 포로의 정의 및 개념

포로는 전시에,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교전권이 있는 자를 포함) 군사의 이유로 인하여 교전 상대국의 권력 안에 들어가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민이다. 제네바 제3 협약 제 4조에 따르면 포로의 부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 -1 > 포로의 부류

1. 본 협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 가.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 나. 충돌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内外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 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 (2)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 할 것.
 -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 할 것.
 - 다. 역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군대의 구성원. ²⁾

2) 웹사이트(2016)『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http://highhcw.blog.me/220571895603>

라.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군대는 이들에게 부속서의 양식과 유사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선장, 수로 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 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 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의 자들도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포로로 대우되어야 한다.

가. 피 점령국의 군대에 소속하는 또는 소속하고 있던 자로서, 특히 그러한 자가 그들을 해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문한다.

나. 본조에 열거한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중립국 또는 비 교전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접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억류함을 요하는 자.³⁾

출처 : 웹사이트(2016).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http://highhcw.blog.me>

2.2. 포로의 대우

전쟁포로에 관해 통용되는 국제법규는 제네바 제3협약(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이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1864~1949년

3) 웹사이트(2016)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http://highhcw.blog.me/220571895603>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4개 분야로 구성 돼 있으며, 세 번째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과 총칙, 143개 본문 조항, 그리고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네바 3협약의 주요내용은 포로가 되는 자, 포로의 권리, 포로의 의무, 그리고 포로 허가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어떤 때에도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해야 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 전쟁포로의 죽음이나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불법적 행동이나 태만행위도 금지되며 본 협약의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전쟁포로의 의사에 따른 의학적 치료 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의학적, 과학적 실험도 금지된다. 이처럼 전쟁포로는 항상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폭력과 위협, 모욕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전쟁포로에 대한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또 포로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이 끝난 뒤 곧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범죄자일 경우라도 특별군사재판 아닌 일반군사재판에 회부되며 3심(審)제도가 적용된다. 전쟁포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할 자격을 가진다. 여성은 그들의 성(性)을 감안, 최선의 고려를 해 치우 받는다. 전쟁포로는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충분히 정중한 자격을 보유한다. 포로를 보유한 측은 속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 포로들의 권한행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⁴⁾

따라서 전쟁포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명백히 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2.3. 포로 시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

포로는 항상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위협적인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여 전시에 포로가 된다면 북한군의 포로 또는 공산권국가의 포로가 될 가능성

4) 시사상식사전. (2016).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

높다.

한국전쟁 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의 포로대우를 살펴보면 비인권적 대우와 고문, 가혹 행위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포로들을 관리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지금도 북한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나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열악한 포로수용소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포로 시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군인도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를 위해 전투를 하였지만 포로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인권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석방 또는 탈출하여 전시에는 적의 사기를 저하 시키거나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 낼수 있고, 전후에는 전범재판 시 포로에 대한 실상을 진술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로 시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쟁의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북한의 포로의 대우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행태를 보고 알고 있음에도 포로 시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대응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거나 전투준비에 부분적으로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2.4. 우리나라의 포로 시 행동 수칙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쟁포로의 새로운 착취형태가 확인 되었는바, 이는 포로의 억류국에서 포로로부터 군사정보를 캐내기 보다는 선전을 목적으로 포로를 교화 시키고 이용하는데 주력한 것으로서, 이결과 미국에서는 1955년 8월 17일 대통령령에 의해 군진수칙(Code Of Conduct)이 제정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 12월 20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국방부 훈령 제 1886호 군진수칙에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와 포로가 되었을 경우 행동

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진수칙에서 볼 수 있는 포로 시 행동 수칙은 전투원의 정신전력 강화와 함께 전쟁수행 중에는 전투원의 의무조항이자, 위반자는 종전 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투원의 전시 행동강령이다. 이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심득해야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포로가 되었을 경우 다양한 포로 시 행동의 방법으로 삶을 의지를 잊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 의지만으로는 포로에 대한 비인권 대우, 열악한 포로수용소 내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표 - 2 > 대한민국 국군 군진수칙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해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돋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며 추호도 적을 돋지 않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나는 만약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성명·군번·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그밖에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출처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1886호 제3편 제1장 제15조, 『군진수칙』

2.5. 포로 시 행동에 필요한 이론

우리는 포로(억류)시 제네바 제3협약에 의거하여 포로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급식, 숙소, 의복, 의료, 월급, 우편, 인권 등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포로수용소뿐만 아니라 중동의 테러단체의 수용소 또는 전시에 설치되는 포로수용소 일부도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불이행 할 경우도 있지만 해당 수용소의 교도관에 따라 달리 집행되어 포로들에게는 아주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포로는 최소한의 생존기술을 이용하여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유지 할 수 있는 생리학·심리학적 이론을 알고 있어야 만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대응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다.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생리학적 각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스톡홀름증후군, 리마증후군, 루시퍼 이펙트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한다.

2.5.1. 생리학적 이론

수용소에 수용 시 포로들은 두려움과 공포, 격리, 불확실성, 고문,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면 신체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인지된 스트레스 지각은 자율신경계의 교감부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상황, 응급 상황에 반응하도록 신체의 각각의 자원들을 동원한다. 교감신경계는 각 반응에 따라 신체의 공격, 방어, 또는 도피에 필요한 에너지를 동원한다. 이런 반응들은 스트레스 상황, 응급 상황에서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자기 자신이 신체적으로 준비를 시킨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훈련으로서 극복이 가능하다. 윌터 캐넌은 이러한 반응을 ‘투쟁–도피 반응’⁵⁾이라 명명하였다.

5) 심리학용어사전. (2014). 『투쟁–도피 반응 [fight or flight response]』

교감신경계가 작용하여 생긴 에너지를 소비해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 행동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 흥분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한 종류로 위급 상황 시 신체의 내부 환경인 위, 폐, 심장 등의 기관과 내분비선을 조절 및 통제하여 주도권을 행사한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는 위급한 상황에 맞서 투쟁할 것인지 또는 도피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투쟁 도피 반응일 때 사람의 몸은 생리적으로 흥분된 상태로 에너지를 소비하여 그 다음 상황에 대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땀을 흘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사지가 떨리며 소화 작용이 중단된다. 신경계는 아니지만 신체 내부의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위급 상황 시 자율신경계와 함께 작동한다. 내분비계의 커뮤니케이션은 체내의 혈류에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하여 소통하는 내분비선과 신체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외분비선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자율신경계의 투쟁 및 도피 반응을 촉발시키는 부신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신장과 콩팥에 위치한다.

이처럼 투쟁 도피 반응은 곧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리적 흥분이란 정서의 주관적인 경험 후 따라오는 것이므로, 화가 나는 경험을 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투쟁 도피 반응을 정의한 생리학자 캐년과 바드는 생리적 흥분은 정서의 원인 또는 결과가 아니며 둘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 보았다.

2.5.1.1.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이란 초조,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의 정서적 반응과 식욕 저하와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가리킨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입 속은 마르고 손에서는 땀이 나며 장이 불편하고 근육은

긴장되며 숨이 차는 것을 느낄 것이다. 포로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 또는 알지 못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 말로만 듣던 고문 등 현재 자신에게는 다가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심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자동적으로 긴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긴박한 생존의 위협 앞에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생리적 각성 상태를 투쟁 및 도피 반응(fight-flight response)이라고 한다.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하부에 전기로 자극 하면 분노하는 표정을 짓고, 혈압과 골격근 혈류가 증가하여 장의 운동과 혈류가 감소하며 분노했을 때와 동일한 자율신경 반응과 신체적 반응이 일어났다. 헤스는 이 같은 반응을 위협적인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투쟁-도피로 개인을 방어하고자 시행하는 전신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투쟁 및 도피 반응은 아래 순서로 진행되고 활성화된다.

첫째 스트레스 평가, 눈앞에서 교통사가가 나거나 공격적인 뱀을 보는 것과 같이 신체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평가되는 자극은 투쟁 및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자극,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개인에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투쟁 및 도피 반응이 일어난다. 위협으로 지각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자극은 투쟁 및 도피 반응을 발생시키며, 정서적으로도 부정적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킨다.⁶⁾

둘째 시상하부, 어떤 자극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지각되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는 시상하부(hypothalamus)를 자극한다. 이에 따라 뇌의 시상하부는 뇌하수체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인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을 분비하는 동시에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게 된다. 셋째 교감신경의 활성화,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는 교감신경(sympathetic nerve)과 부교감신경(para sympathetic nerve) 두 가지로 신경으로 나눠진다.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시상하부에 의해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 하도록 투쟁 및 도피 반응인 생리적 각성을 일으킨다. 부교감신경은 뇌의 시상하부에 의해 자극이 되지만, 다시 안정된 상태로 신체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6) 김정호, 김선주. (2002).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 서울: 시그마프레스.

유기체는 외부의 위협적인 자극을 지각하면 뇌하수체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을 분비하는 동시에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2.5.1.2.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리적 각성

스트레스를 지각하면 뇌의 시상하부가 각성하고, 이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이때 뇌하수체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을 방출하고 교감신경은 심장박동과 그로인한 혈압을 상승시켜 신체적 각성을 일으키게 한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은 부신피질로 하여금 두 종류의 호르몬, 즉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한다.흔히 아드레날린이라 불리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이 만들어 내는 강력한 흥분제인데, 이 호르몬은 불면증, 식욕 부진, 정신적인 도취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다. 그 중에서도 에피네프린은 오직 부신피질에서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 알려져 있다. 혈액을 채취하여 아드레날린 수치를 측정하면 스트레스를 경험 정도를 알 수 있다.

스트레스가 부과된 상황에서 부신피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땀샘이 활성화되어, 혈액이 골격으로 많이 흘러 혈관 내에 포도당(glucose)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히 증진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위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도록 개인의 신체적으로 준비 시키는 것이다. 신체의 각 부분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은 다음과 같다⁷⁾

첫째 호흡이다. 스트레스를 지각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호흡이 빨라지며 얇은 숨을 짧은 시간에 쉬게 된다. 긴장하면 가슴으로 숨을 쉰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고 뱃속까지 깊이 들이마시는 깊은 호흡을 하면 신체적인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심장 박동이다. 호흡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때문에 활성화된 교감신

7) 윤가현 등 14인 공저. (2011). 『심리학의 이해』 . 서울: 학지사.

경은 심장 박동 수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은 보통사람 기준으로 1분에 70에서 90번 사이인데, 스트레스를 지각하면 1분에 200번 이상으로 치솟기도 한다. 간혹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박동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간과 위장 기능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간은 포도당을 혈액에 분비한다. 즉, 투쟁-도피 반응에서 신체가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축하고 있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 한 후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신체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소화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내장기관에서 사용될 혈액이 근육이나 다른 신체의 기관으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넷째 근육의 긴장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협에 대응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신체를 민첩하게 움직여야 함에 따라 근육의 긴장도는 상당히 높아진다. 스트레스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지 못해 근육의 긴장도 오래 지속되면 근육통에 시달리게 된다.

2.5.2. 심리학적 이론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생존을 위하여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신체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수용 시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응하여 생활 및 탈출 할 때까지 생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심리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한다. 리마 중후군과 스톡홀름 중후군, 루시퍼 이펙트라는 세 가지 인간의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스트레스 극복에 더욱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포로 시 교도관과의 관계형성에서 루시퍼 이펙트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포로를 대하는 심리를 보이는 교도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스톡홀름 중후군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교도관이 리마 중후군의 심리상태를 보이게끔 하여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려면 각

각의 심리학의 특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포로수용소에 수용되게 되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다. 이것은 상당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쟁 및 도피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심리학적 압박 속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스톡홀름 증후군, 리마 증후군, 루시퍼 이펙트 증후군에 대한 심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포로가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고, 포로수용소의 교도관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평소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그와 같은 심리학적 반응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생기고 리마 증후군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포로수용소 내에서 교도관과의 관계형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 포로수용소 운용은 전문 포로수용소 교도관이 아닌 이들에 의한 운용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전선에 전시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선에 많은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장교와 부사관, 즉 간부들의 보충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문가들에 의한 포로수용소 운용이 이루어 질것이며 이들은 교도관이라는 명목 하에 루시퍼 이펙트 심리에 의해 제네바 제 3협약의 포로에 대한 대우는 고사하고 기준 없는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사전에 이해하고 포로수용소 생활 간 행동에 적용한다면 포로(억류자)가 교도관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줄이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5.2.1.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공감하거나 연민과 같은 긍정적이고 호감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트라우마적 유대(traumatic bonding)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납치나 유괴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지만, 포로, 억류자,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학대하는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 간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사용 된다.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의 크레디트반켄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유래했다. 당시 두 명의 강도가 은행을 습격해, 세 명의 남자직원 3명과 여자직원 1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강도들과 은행 직원들은 함께 금고에서 지내면서 강도와 직원은 매우 친숙해졌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직원들은 은행 강도들을 위해 본인들이 직접 경찰과 협상했으며, 강도들에게서 풀려날 때에 그들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수용소로 이송되는 강도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후에는 이 강도들의 안전과 운명을 걱정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은행 강도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 경찰의 사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도들을 보호했고, 법정에서는 이 강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러한 현상을 본 스웨덴의 정신의학자이자 범죄 심리학자이자인 닐스 베예로트(Nils Bejerot)가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명칭이 알려졌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유괴나 납치 사건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위협과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주로 유괴나 납치 사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일반적인 용어로 트라우마적 유대(traumatic bonding), 공포 유대(terror-bonding)라고 하기도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발달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즉 호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떤 이성적 선택이거나 개인의 의식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설명이 있다⁸⁾.

8) 심리학용어사전. (2014).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1) 프로이트적 설명

성격의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자아(ego)는 위협에 직면 했을 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기제를 작동시키게 된다. 방어 기제는 위협적이고 불쾌한 감정, 욕망, 생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를 방어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방어 기제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처를 입거나 스스로 분열되지 않도록 돋는다.

유괴, 납치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건강한 자아(ego)는 생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모든 종류의 독립성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생존에 대한 의지 및 욕구를 상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유아기 상태로 돌아가 침묵을 지키거나, 음식을 달라고 울거나, 극단적인 의존 상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가해자는 유아기 시절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외부 세상 즉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일시하고 오히려 그에게 의존함으로써 생존을 연장하기 위해 분투한다. 이러한 피해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넘어서서 의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가 되었던 미군 포로의 공산군 국가로의 전향 사례에서 위와 같은 심리학적 요인이 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2) 범죄 심리학적 설명

범죄 심리학자들은 피해자가 당면한 위협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파괴적인 행동이나 대우에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해자의 유쾌하거나 불쾌한 반응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결과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가해자의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된다. 가해자들을 즐겁게 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심리적 특성을 발달시키도록 동기화되며, 이로 인해 점차 적극성을 잃게 된다. 행동, 결정, 사고하는 능력 또한 점차 잃게 된다. 피해자는 생존을 위해 상황을 부정을 하고, 가해자의 요구에 집중하며, 가해자

에 대한 호감, 경찰 등의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 가해자의 관점과 동일시 하는 등의 전략을 취한다.

3) 스톡홀름 증후군 이론

임상 심리학자 그레이엄은 스톡홀름 증후군⁹⁾의 심리적 역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질 및 피해자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는 중에 가해자의 친절을 지각하게 되면 자신이 생명이 연장되고 가해자로부터 생존을 허락 받았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탈출 방안이 지각되지 않으면, 겁에 질린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공포와 가해자의 폭력을 부정하고 가해자의 친절한 특성에 대해 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때 가해자가 보이는 친절만이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구조에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상황적 요소이며, 자원이자 탈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에 의하면 스톡홀름 증후군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은 네 가지다. 첫째 피해자가 자신의 생존에 대한 해당 상황에 대한 위협을 지각하고, 둘째 가해자로부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친절함이라는 것을 지각하며, 셋째 가해자의 상황이해 시각과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인물로부터의 고립되어 있고, 넷째 가해자를 이기는 것 외에는 해당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없음을 지각하고 있다. 또한 그는 9개의 인질 연구들을 바탕으로 발견한 스톡홀름 증후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66가지 특성(행동, 태도, 신념)을 자신의 저서에서 분류한 바 있다.

그레이엄은 학대 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톡홀름 증후군 현상에서 학대에 대한 부정(denial), 최소화(minimiz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와 같은 인지적 왜곡이 가해자와의 유대를 형성하는 심리 역학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합리화는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가해진 폭력을 "정당하다"라고 믿는 현상으로, 싱글먼 등은 일상적인 예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중 43%가 자신의 파트너에 의한 가해행위, 폭력에 대해 "적정 수준까지는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다. 폭력의 최소화(minimization)는 오키프 등의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21%의 피해자들만이 폭력에 의해 자신들의 관계가 망가졌다고

9) 심리학용어사전. (2014).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생각하며, 30%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21%는 폭력이 사실상 자신들의 관계를 개선시켰다고 응답했다. 폭력으로 인해 관계를 종결한 사람들은 12%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공포로 인한 생리적인 걱정 상태를 매력에 의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인지적 혼란 또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왜곡(폭력이 자신의 관계를 망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폭력이 사랑의 증거라고 해석하거나 심지어 더 개선했다고 인지)을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해자는 유대를 형성 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함은 물론 더욱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트라우마적 유대 이론

대인관계 상황의 트라우마적 유대(traumatic bonding)를 주로 연구한 더튼과 페인터에 따르면 권력의 불균형(power imbalance), 좋은 대우와 나쁜 대우의 간헐적 발생(intermittent good– bad treatment)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갖춘 관계에서 강한 유대관계와 정서적 애착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권력의 불균형은 지배적인 인물과 종속적인 인물이 점차 의존하게 되는 역학 관계를 형성한다. 구타와 폭행이 일어나는 관계에서 가해자가 가지는 지배적인 인물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권력의 불균형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유지한다. 강화(reinforcement)와 처벌(punishment)이 번갈아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가 구타와 폭력 등의 학대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러한 유대가 마치 "시간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길게 늘어나지만 결국 학대받는 인원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고무줄"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과거의 학대 경험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흐려지고 공포가 가라앉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 "해당 관계가 갖고 있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할수록 트라우마적으로 형성된 유대가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것은 피해 여성의 갖고 있던 관계에 대한 '신념 게슈탈트'의 급격한 전환을 유발 한다"¹⁰⁾

10) 심리학용어사전. (2014).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5) 스톡홀름 증후군의 주요 증상

다른 많은 심리적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스톡홀름 증후군 역시 몇 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다.

< 표 - 3 > 스톡홀름 증후군 특징적 증상

가해자에 대한 존경심을 보인다.	구조 시도를 거부한다.
가해자를 옹호한다.	해자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한다.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회피한다.	가해자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거부한다.

출처 : 심리학 용어사전(2014). 『스톡홀름 증후군』

6) 대인 간 상황에서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관한 주요 연구들

로와 스포라코프스키(Lo & Sporakowski, 1989)의 연구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77%가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관계 지속의 이유에 대해 사랑, 파트너와의 데이트가 주는 즐거움 등이 언급되었다. 플린(Flynn, 1990)은 연인 관계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으며 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관계를 끝내거나 단기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험이 있는 59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들 중 50%는 폭력 사건 후 3개월간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파트너에게 느낀 사랑의 크기는 그들이 폭력 발생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기간($r=0.52$), 폭력의 빈도($r=0.38$)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들이 파트너의 첫 폭력 행사 이후 그들의 파트너와 함께 보낸 기간의 길이는 폭력이 더 잦은 경우에, 여성들이 느끼는 사랑의 크기가 큰 경우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연인으로 지낸 시간이 긴 경우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사건 후 머무르는 기간의 길이에 대한 단일 예측 요인으로는 폭력의 빈도가 있었다. 이것은 폭력의 빈번한 경험이 여성의 고려해볼 수 있는 탈출 방안의 감소와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폴링 스타드는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이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여성들의 파트너가 첫 폭력 발생 후 관계를 단절한 여성의 파트너에 비해 더 통제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피해 여

성들이 탈출 가능성의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 가해자와의 트라우마적 유대(폭력이 더 클수록 더 큰 사랑의 감정을 표현)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여성이 경험하는 공포를 줄이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상호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돋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의 설명을 통해 폭력적인 관계들이 그렇지 않은 관계에 비해 왜 더 친밀한 것으로 경험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¹⁾

더튼과 페인터의 연구는 자존감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하나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파트너와 별거 중인 피해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별거 직후와 별거 6개월째에 두 차례의 연구를 수행했는데, 트라우마적 유대가 애착, 낮아진 자존감, 경험된 트라우마 수준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장 잘 예측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즉, 가장 자존감이 낮고 트라우마를 가장 많이 경험한 여성들은 가장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 직후와 6개월째를 비교했을 때 9%의 여성만이 본인의 파트너와 다시 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전체 피해자들의 자존감 수준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으며, 73%의 여성들의 애착 점수는 강하게 나타났고, 트라우마의 경험 점수는 57%로 감소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해 개인의 기질(disposition)이나 성격 특질(trait)만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증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성하는 관계 및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포로 연구, 협상 연구, 분쟁 연구 등 다각적 학문의 접근이 필수적인 현상이다. 유괴, 납치 사건이나 테러 사건에서의 스톡홀름 증후군은 주로 경찰, 분쟁 해결 연구자, 범죄 심리학자 등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대인 간 학대 상황에서 나타나는 스톡홀름 증후군 또는 트라우마적 유대(traumatic bonding)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 연구, 가족 청소년 연구, 연구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사회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 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스톡홀름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 증상이라는 자각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의 포착과 구체적인 특성 연구 및 증

11) 심리학용어사전. (2014).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https://terms.naver.com/>

상의 치료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되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공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무엇 때문에 유대 관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지 피해자가 상황을 냉철히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²⁾

2.5.2.2. 리마 증후군

리마 증후군은 스톡홀름 증후군과 정반대 현상으로 가해자들 즉,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질이나 피해자들의 현 상황을 이탈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소망과 욕구에 동조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리마 증후군은 1996년 12월 17일 폐루의 리마에 있는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유래했다. 14명의 투팍 아마루 혁명운동(Tupac Amaru Revolutionary Movement) 단원들이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던 외교관, 정부 인사, 기업인, 군 인사 등 400명의 인질을 억류했다. 그런데 반군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인질을 풀어주었다. 그 파티의 참석자 중에는 폐루의 차기 대선 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¹³⁾

협상은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인질범들에 의해 모든 인질들이 풀려났으며, 1명의 인질만이 사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질범들은 인질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질들을 위한 의약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한편,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놓는 등 인질들에게 동화되는 여러 이상 현상을 보였다. 이듬해 4월 22일 폐루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점거 사태는 종결되었으며, 당시 14명의 인질범은 모두 사살되었다. 이러한 리마 증후군은 도덕적 인 우유부단함 때문인지, 망각 때문인지, 죄책감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인질 및 점거 사태의 지속으로 고립감에 빠진 인질범들이 인질의 고통을 이해하고 점차 감화되어 인질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 하면서 그 결과, 인질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점차 완화된 것으로 설명 된다¹⁴⁾. 또 인질범들 중

12) 심리학용어사전. (2014).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https://terms.naver.com>

13) 두산백과. (2016). 『리마신드롬』 <https://term.naver.com>

여성과 소년들이 일본과 서구의 문화에 점차 감화되어 이를 동경하고 이해하는 행태를 보여 인질들의 안전에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¹⁵⁾

2.5.2.3. 루시퍼 이펙트

상황적 힘을 수정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의 행동을 줄이는데 있어서, 상황 속에서 놓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치료 활동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실험이 스텐포드 대학교 교도소 실험이다.

1971년 8월 14일 짐바르도 교수의 팀은 수감자와 교도관 각각의 특징과 수용소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을 시험해보기 위해 실험¹⁶⁾을 시작했다. 고용된 참가자들에게 2주간 '수용소'에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파 하고, 그 대가로 \$15의 일당을 주기로 했다. 70명의 지원자 중, 짐바르도 교수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과거 범죄나 약물 남용의 이력이 없는 24명의 남자들을 선발했다. 이들 모두 미국이나 캐나다의, 중산층 가정의 비교적 좋은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었다.

'수용소'는 스텐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건물 지하실에 설치했다. 실험 도우미들은 수감자였으며 짐바르도 교수는 교도소 감독관이었다. 짐바르도 교수는 참가자들이 그가 원했던 자아감 상실, 몰개성화,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것을 심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했다. 최초의 실험에서는 교도관 9명, 수감자 9명만 참가하였다. 나머지 인원은 비상 상황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는 조던 홀 지하에 제작된 수용소의 규모가 24명을 동시에 실험하기에 협소하였기 때문이다. 교도관은 3명씩 하루 8시간씩 3교대 하였으며, 수감자들은 3개의 수용실에 각각 3명씩 수용되었다. 실험 참가자들 중 교도관역을 맡은 사람은 무기(나무 곤봉), 셔츠 및 바지에 가짜 교도관 옷을 지급하였고 눈을 마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선글라스도 지급하였다. 수감자들

14) 주수기. (2004). 『인질테러 해결을 위한 인질협상』 . 분쟁해결연구 2(2), pp.69-102.

15) 두산백과. (2016). 『리마신드롬』 <https://term.naver.com>

16) 위키백과. (2016). 『스텐퍼드 감옥 실험』 . <https://ko.wikipedia.org/wiki/>

은 그들이 불편하도록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과 머리에는 스타킹을 씌우고,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이름 대신 그들의 고유 번호로 불렀다.

교도관을 맡은 참가자들은 실험 하루 전 날 그들이 수감자들을 육체적으로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2003년에 나온 The Stanford Prison Study 비디오에 의하면, 짐바르도 교수는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수감자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 행동 인즉 수감자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와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고 당신, 나, 그리고 수감자들은 어떠한 사생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개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없애냅니다. 대개, 이러한 모든 것을 야기 시키는 것은 무력함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감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수감자들처럼 행동해서 그들의 집에서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 되었다. Palo Alto 경찰서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하는 행위(미란다 원칙 설명하기, 범인 식별용 사진 찍기, 지문 채취 등등)를 해서 짐바르도 교수를 도왔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이송되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당하며, 그들의 새로운 일체성을 부여받을 실험을 위해 준비된 수용소에 도착했다. 실험은 정말 짧은 시간 만에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교도관들에게서 굴욕적인 대우와 가학적인 행위를 받은 수감자들은 괴로워했으며 그들의 행위들은 용인되어 왔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억제로 인한 수용자들의 반란을 초래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심각한 감정적 혼란이 많이 일어났다.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에 예상치 못한 반란이 일어났다. 교도관들은 지금까지 보다 더 진지하게 본인들에 역할에 몰두했으며, 연구 직원들의 허가 없이 소화기로 공격해서 수감자들의 반란을 진압했다. 36 시간이 흐른 후,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말하기로는 한 수감자가 "미친 짓"을 시작했다고 했다.¹⁷⁾

#8612번 수용자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격 노하는 등의 미친 행동을 시작했다. 그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고 연구원들은 그를 풀어줘야 했다. 실험에서 빠진

17) 위키백과. (2016). 『스탠퍼드 감옥 실험』 <https://ko.wikipedia.org/wiki/>

#8612번 수용자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남은 수감자들을 내보낸다는 소문이 돌았다. 교도관들은 수용소를 철거하고 수감자들을 안전한 다른 장소로 옮겼다. 어떠한 시도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도관들은 수용소를 짓느라 헛수고 했다는 것에 대해 화가 치솟았고 수감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이 그들이 배운 방법대로 죄수 번호를 반복해서 부르라고 강요했으며 그것이 자신들을 증명하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켰다. 교도관들은 머지않아 이 번호 세기를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했으며 죄수 번호를 틀린 자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오래 기합을 주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 급격히 위생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이 용변 등의 생리적 현상을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이 그들의 변기통을 비울 수 없는 별을 주기도 했다. 한편 매트리스는 이러한 엄격한 수용소에서는 보물이었으며 교도관들은 매트리스를 뺏어서 콘크리트 위에서 채우는 등의 별을 주기도 했다. 몇몇 수감자들은 벌거벗은 채로 다니도록 강요받기도 했으며 남색(男色)을 흉내 내는 등의 성적 모욕을 받기도 했다.

짐바르도 교수는 그의 실험에 점점 몰두 했으며 적극적으로 이 수용소 실험에 참여했다. 4일 째, 몇몇 수감자들이 탈옥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짐바르도 교수와 교도관들은 그들을 더욱 안전한 지역 경찰서로 보내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몇몇 교도관들은 폭력적으로 변했다. 실험자들은 교도관 중 3분의 1이 진짜로 잔학한(sadistic) 경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실험이 일찍 끝났을 때 교도관들 대부분은 화를 냈다. 짐바르도 교수는 참가자들이 그들의 역할에 완전히 흡수 되었다고 말하며 그들은 이것이 실험인데도 가석방을 위해 서라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가석방 신청이 전부 거부되었던 했지만 실험에서 나간 실험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 짐바르도 교수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잊은 후에 그들이 실험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 깊숙이 수용소에 흡수가 되었으며 그들 스스로를 수감자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¹⁸⁾

18) 위키백과. (2016). 『스탠퍼드 감옥 실험』 <https://ko.wikipedia.org/wiki/>

이처럼 비전문적인 인원에 의한 수용소 운영 및 관리는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적 환경 요소는 수감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협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신이 받고 있는 가혹행위에 대한 저항 및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즉, 극복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교도관의 가학 행위대해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상황에 익숙해지려는 생각이 강해 져서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는 삶을 포기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III. 포로 시 행동에 대한 사례 분석

3.1. 주요국가의 ‘포로 시 행동’ 훈련

모든 국가의 군대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SERE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SERE 훈련은 생각 못한 억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로 적의 포로가 되었을 경우 극단적인 형태의 강압적신문과 학대를 견디고 저항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미군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훈련의 핵심은 교육생들의 모의 군대 수용소 안에서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나가는 것이다. 이 강렬하고 혹독한 모의 경험은 그들이 적에게 붙잡히거나 고문을 당할 경우 그 상황에 좀더 잘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SERE 훈련은 며칠 동안 가상의적에게 억류되는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일시적인 심리 변화와 부담을 주는 것에 불과 하지만, 실제로 억류될 경우 받게 되는 심리적·신체적 영향은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SERE 훈련, 경험 학습 및 준비 과정의 주요기능은 군인들에게 억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SERE 훈련 환경은 현실의 스트레스를 미리 체험하는 현장이며, 이에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SERE의 생존, 회피, 저항, 탈출의 각 개념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할 포로 시 행동에 필요한 생존과 저항에 대해 각국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SERE 훈련의 특성상 주로 특수 부대원에 의한 훈련이고 인권문제와 연관 되는 부분도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개된 자료가 많이 않은 실정이다.

SERE의 본래 취지는 생존하는 방법과 적을 회피하는 방법 포로 시 저항하는 기술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그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각국의 SERE의 훈련 배경과 훈련방법 중 포로로 수용 되었을 때에 필요한 훈련중점

및 훈련형태를 알아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미국, 스웨덴, 영국군의 SERE 훈련의 배경과 방법, 그리고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포로에 대한 비인권적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위해 훈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시민권을 가지 자국민에게만 적용하여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스웨덴은 중립국으로서 세계 여러 분쟁국가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포로로 억류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중동국가의 IS와 같은 무장단체 및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에서 전문적으로 SERE 학교를 운영한다. 이는 민간인, 즉 종군기자나 기업인 등이 내전이나 분쟁지역에 가는 경우에 이 훈련을 반드시 수료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영국은 특수부대원에 한해서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인원에게 강도 높은 포로 시 행동 교육을 실시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끝까지 생존한 앤디 맥나브 중사는 이러한 포로 시 행동 훈련이 내가 생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수기애 기록했다.

3.1.1. 미국

미군은 군인에게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교육하고 적으로부터 탈출하며 억류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¹⁹⁾ 최초의 생존훈련 교육은 구면보트 사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본인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억류되었을 경우 이를바 ‘BIC4(이름, 계급, 군번, 생년월일)’만 밝힐 것을 교육 시켰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이 창설된 1947년에는 기본 생존 훈련 학교들이 알래스카의 놈, 그린란드의 툴레, 래브라도의 구스 베이에 설립 되었다. 그 당시 미 공군이 주요임무는 알래스카를 방어하고 북극을 넘어오는 적군을 차단하는 것이었기에 생존훈련 학교에서는 추운환경을 극복하는 방법과 구조를 위한 간이 활주로를 급조하는 기술과 같은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생존훈련 학교들의 주된 관심사는 완전히 바뀌

19) Carrie H. Kennedy · Eric A. Zillmer. (2016). 『군 심리학』 . 서울 : 학지사.

게 된다. 한국전쟁은 제2 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상에 발발하여 이른바 ‘잊혀진 전쟁’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한국전쟁 당시 많은 전쟁 포로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당시 7 천명이상의 전쟁포로 중 40%는 억류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사로잡힌 미군 전쟁포로 사망률보다 유일하게 높은 전쟁 포로 사망률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21명의 군인이 허위 자백을 하며 한국에 남기로 동의 하였다. 많은 신문 전문가와 자문가는 이러한 자백이 신체적·정신적 고문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 전쟁포로로 억류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고위 군 지휘관들은 여군을 포함한 모든 장병의 생존훈련방식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미 SERE훈련 학교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로 억류되었던 사람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개발하였으며, 1961년 미 공군에서 최초로 시행 되었다. 미 해군은 1962년에 캘리포니아주 코르나도에서 시행한 사막 생존훈련과 메인주 브런즈윅에서 시행한 혹한기 생존훈련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미 육군은 1963년 북 캘리포니아 주 포트 브래그에서 최초 생존훈련을 시작하였다. 미 해병대는 북 캘리포니아 주 체리 포인트에서 최초의 SERE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지금은 해병대 속이 아닌 교관으로 구성되어 미 해군 생존훈련 학교에서 생존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미 해병대는 특수작전부대를 위해 특성화된 SERE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2008년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미 공군에서 처음으로 ‘생존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회피 준비 및 억류 준비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미 해군은 1970년에 들어서 생존, 회피, 저항, 탈출 분야에 개별적인 전문 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SERE’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미 육군은 해군, 공군의 생존 훈련 학교가 창설된 이후 타군과 함께 표준화된 ‘생존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르러 SERE 훈련과정을 도입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 하기 전, 전쟁포로가 되는 것을 대하는 훈련은 단순히 제 2 차 세계대전에 가르쳤던 BIC4 만을 발설 할 것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이름, 계급, 군번, 생년월일 외에 다른 것을 발설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신문을 견디는 일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전쟁 포로들이 조국을 배반하지 않으며 신문자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 없이 신문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 창안 되었다. 1972년에 귀환한 베트남 전쟁 포로들은 SERE 학교에서 그들이 받은 고문, 장시간의 신문, 처형 위협, 육체적 외상, 동료 전쟁포로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쳤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가장 의미 있는 권고 사항은 전 군에서 표준화된 훈련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수년간 몇몇의 합동기구가 이러한 문제점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99년 미 합동군 사령부 예하조직으로 합동인명구조기관(Joint Personnel Recovery Agency :JPRA)이 설립되었다. JPRA는 모든 SERE 훈련과 군대의 행동강령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JPRA의 전략적인 목적은 작전 지원과 구조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교육 훈련의 제공, 훈련의 표준화에 관한 지도 감독, 인명 구조 능력 및 절차 분석, 현 지휘부와 통제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 기술을 구비하는 것에 있다.

미 합동군사령부가 폐지된 후 2011년에 미 합참 본부가 JPRA의 집행부서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JPRA는 미군의 모든 SERE 훈련과 군대의 행동강령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JPRA는 미군 내 모든 SERE 학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함과 동시에 모든 SERE 학교와 인명구조요원에게 표준화된 지침을 조정하고 제공하기 위해 매년 훈련 프로그램의 관리자들, SERE 심리학자들, 인명구조 전문가들, 계획자들을 소집하여 훈련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전 미군에서 통합된 훈련으로 여겨지는 SERE 학교들은 현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및 진화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에게 오늘날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JPRA는 고위험 훈련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교육생과 교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의거 SERE 훈련 공동 기준 및 SERE 역할 실습 훈련 공동 기준을 공표 했다.

미 공군은 Level B SERE과정, 회피 및 억류 후 행동 훈련과정을 개발 하였

는데, 이과정은 생존, 회피, 회복에 대한 이론교육과 집중적인 역할 수행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 해병대와 해군에서는 특수 작전 부대들이 직면 할수 있는 사건·상황에 좀 더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SERE과정을 공동개발 하였다.

SERE 교관들은 항공요원, 저격수, 특수부대원, 첨보요원과 같이 고립, 억류, 납치, 구금의 위험성이 높은 장병을 대상으로 ‘생존훈련’을 실시한다. SERE 훈련은 스트레스 면역 훈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면역의 개념은 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백신의 작용원리와 같이 스트레스 면역은 훈련 중 부과되는 스트레스가 신체의 심리적 생물학적 대응기제를 활성화하지만 대응기제를 무력화 하지 않는 순간일 때 일어난다. 스트레스 면역이 생기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개개인의 행동능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훈련 모델에 의하면, 수업장소에서 교육생에게 교훈적인 정보를 학습하게 하고 수업장소 중심의 역할 실습을 통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훈련의 종반부는 가능한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생의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실제 실습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훈련에는 장소(Field), 저항(Resistance)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훈련의 장소 요소는 교육생에게 악천후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 친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길을 찾는 법, 불잡히지 않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저항 요소에는 상황인식 능력을 사용하는 법, 착취와 신문에 저항하고 경감시키는 법, 실현 가능한 탈출계획을 수립하는 법,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명예롭게 귀환하는 방법 등 억류되었을 시 살아남는 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의 남녀 장병들을 최고수준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SERE학교에서는 교육생이 평상시 억류, 전쟁포로 감금, 다양한 유괴 및 인질상황 각본 등 다양한 돌발 억류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밀이 아닌 사항²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생들은 개인 생존 기술, 길 찾기와 위기모면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신문과 착취에 저항하는 기술을 교육받는다. 이러한 교육 이후 교육생들은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훈련은 익숙

20) 미군 SERE교육의 내용 중 포로 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 시민권 자에 의해서만 실시하고 타국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지 않은 지형에서 길을 찾는 기술,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방법,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덫을 놓는 방법, 소형은신처를 세우는 방법, 독초를 구별하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배고픔, 불확실성, 피로, 좌절 상황에 강제로 놓이게 된다. 교육생들은 훈련의 장소 요소인 실제와 같은 위기 모면 훈련을 공식적으로 진행한다. 교육생들에게 최초로 부여하는 주요 임무는 적대적인 환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수마일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하여 아군에게 연락을 취하는 임무다. 억류 훈련단계에서는 가상의 적대 세력에게 붙잡혀 다양한 억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상황인식 능력, 새롭게 습득한 저항 기술, 행동강령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과정이며 훈련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체적·심리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과정일 것이다.

3.1.2. 스웨덴

스웨덴 SERE 학교에서는 포로로 구금되거나 억류 시에 개인의 생존 즉 삶의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 중점으로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가져야 하고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심리학과 생리학을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유지하여 마지막 고국으로 생환 및 탈출 할 때까지 잊지 않아야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스웨덴 SERE교육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나이도와 과정에 따라 초급 수준인 SERE A부터 SERE B, SERE C 코스이다.

SERE A 코스는 초급 생존술 교육으로써 전 스웨덴군이 모두 수료해야하는 과목이다. 과목에는 초급 생존 기술인 기초저항, 불 피우기, 식수 획득 및 식량 획득 등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해당 부대에서 실시하며 교육기간은 3일이다.

SERE B 코스는 중급 생존술 코스로서 생존술에 회피, 방향유지가 추가되고 포로 시 행동 6시간이 포함되어 실시된다. 이과정은 교육기간이 3일이며 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파병지역으로 파병되는 군인을 대상으로 3일간 실시되며 상황에 따라 해부대 또는 SERE학교에서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SERE C코스는 고위험지역으로 파병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회피, 포로 시 행동 24H, 탈출 과목을 11일간 실시한다. SERE C 과정 수료 인원은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3일간 받아야 자격이 유지 되며, 군인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군기자 및 분쟁지역 파견 민간인도 과정도 7일간 교육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다.

훈련은 기초적인 생존 및 회피기술은 과목별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포로 시 행동 요령 교육을 24H동안 FTX(실제연습)로 실시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훈련의 중점²¹⁾은 포로수용소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생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스트레스 통제, 정보제공 통제능력, 짧은 목표 설정, 의미 있는 행동 실시, 적대국가 및 단체의 문화, 규칙, 종교 등에 대해 사전지식 함양 및 행동화, 탈출의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체득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그동안의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분석하고 중동지역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생활한 이들의 증언과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분류된 과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이다. 포로가 되어 수감되거나 억류되었을 경우에는 혼자가 될 경우가 많다. 대규모 전면전을 통해 포로가 되었을 경우는 다르겠지만 먼저 개인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해보면 포로가 된 개인은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감대형성에 주력해야한다. 긍정적인 대화나 같은 주제,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의 희망적인 주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동료와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다.

둘째 스트레스 통제이다. 스트레스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지만 결국 가족, 신앙, 친구 등을 생각하며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립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개인의 스트레스 통제가 되어야 만이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1) SWEDEN SERE School 교육 팜플렛(2015). “Resistance Exercise Directive SERE C”

셋째는 정보제공통제이다. 군인이 포로로 수감 및 억류 되었다면 해당국가나 단체는 포로로 하여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문을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수용소 내에서의 신체적 자유 보장, 금전적 보상, 본국 송환 등의 회유책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적국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발설해 버린다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해당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포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화 한 것이 양파이론이다. 해당 포로가 처한 현 상황에서 저 위험의 내용과 중 위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수용소 내 교도관 또는 신문관과 대질시 구분해서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수용소 내에서는 불비한 여건 속에서 교도관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음식, 휴식, 자율성 보장 등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권한을 교도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런

넷째는 짧은 목표 설정이다. 포로생활의 기간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하루하루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면 삶의 의지를 연장하기 힘들다는 심리학적근거에서 훈련의 중점으로 분석하여 훈련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교도관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던지 일기를 써본다던지, 어렵지 않고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다섯째는 의미 있는 행동 실시이다. 포로수용소에서는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여건 하에서는 항상 위생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는 행동을 습성화해야 한다. 또한 휴식시간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신체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휴식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수감되었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신체기능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위생, 휴식, 운동 또한 하나하나의 시간과 행동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한다.

여섯째 적대국가 및 단체의 문화, 규칙, 종교, 사상 등에 대한 사전지식 함양이다. 적대국의 교도관들도 사람들이다. 그들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개인

별로 종교가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북한의 문화화 사상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교도관 및 신문관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고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지 상황을 빨리 파악하려면 먼저 그들의 문화나 사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항이나 의미 없는 순종은 오히려 교도관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동의 경우에는 원손으로 밥을 먹는다던지, 오른손으로 변을 본 뒤 뒤를 해결 하는 행위는 교도관들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밥을 회수 할 것이며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낙인이 찍혀 포로 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3.1.3. 영국

영국은 특수부대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포로 시 행동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특수부대 SAS(Special Air Service)를 위한 과정이다. 과정명은 육군 전투생존 교관과정(Army Combat Survival Instructor Course)이며, SAS 선발과 동시에 교육을 받으며 기간은 3주이다.

훈련과제는 체포 시 신념, 포로 시 행동과 신문저항이다. 훈련의 방법은 포로 훈련장의 신문장소에 도착하여 2~3시간 가량의 Stress Position(소음, 암흑, 구속, 독박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것) 후에 신문이 시작된다. 1단계는 신문실에서 옷을 벗기고 소지품 목록을 친절히 작성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질문을 한다. 열핏 보기에는 신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최초 포로가 되었을 때 회유를 하려는 신문관의 행동이다. 소지품 및 장비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도피를 불가능하게 하며 아주 지능적으로 질문을 한다. BIG4(이름, 계급, 군번, 생년월일) 이외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로 일관하여 1단계 신문이 끝나면 소음방에서 1시간 가량 Stress Position 후 2단계 신문실로 이동한다. 신문관은 처음에는 아주 친절한 말투로 외유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문을 하지만 효과가 없자 단순질문은 BIG4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연속적으로 질문하여 신경질적으로 만들며 중간 중간에 필요한 질문을 하여 무의식중에 대답을하도록 한다. 단순질문 시간은 20~30분 정도 지속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다시 소음방으로 이동하여 Stress Position 2시간 실시 후 3단계로 신문실로 이동한다. 3단계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회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강압적인 말투와,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고 침을 튀겨가며 아주 큰 목소리로 협박을 한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때 공포감을 가장 극심하게 느낀다. 이렇게 점점 강도를 높이는 신문과 Stress Position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함으로 인해 수용소 내에서 신문관 또는 교도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실제로 이라크전쟁 당시 SAS정찰대 소속의 앤디 맥나브는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귀국한 뒤 전투수기²²⁾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전장은 미지의 모험장이고 전투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는 지옥도 같다. 우리는 임무수행중 적에게 발각되었고, 적의 공격을 받고 헤어졌다. 전사한 대원이 있었고, 포로가 된 대원도 있었다. 탈출도중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의 환희, 포로 신문을 받을 때의 비인간적이고 야수 같은 폭행, 잔학행위를 받으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인한 정신력, 신문관을 우통하는 우리의 조작극,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전투의 극한상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낱 이야기 거리에 불과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뼈를 깍아 내는 고통인 것이다. 포로가 되었을 때 훈련 받은 대로 행동했으며, 출발 직전 포로 경험이 있는 미 해병대의 미군 병사에게 강의를 듣고 출발하였다.”

앤디 맥나브는 석방 될 때 까지 강인한 정신력과 체득된 포로 시 행동으로 인해 포로수용소에서 생존하여 귀환 할 수 있었다. 그는 신문 시 모진 구타에도 BIG4만을 말했으며, 교도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물을 손으로 치우는 등의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여 석방 시 까지 생존 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강한 훈련과 공포와 두려움에 엄습한 가운데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평시 훈련을 통하여 둔감 시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22) 앤디 맥나브. (2003). 『SAS정찰대의 전투수기』. 병학사.

서 훈련과 실제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
화 하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생존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3.2. 북한의 포로·정치범 수용소 관리 사례 분석

3.2.1.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수용소

3.2.1.1. 포로수용소 위치

전쟁당시 유엔군이 공산군 포로를 수용하였던 수용소는 제주도·거제도·부산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공산 측의 포로수용소 중에 국군을 수용한 위치는 만포 부근이고 유엔군을 수용한 위치는 벽동 이었다²³⁾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황에 따라 북한 측의 포로수용소는 폐쇄, 이전, 신설되는 등 위치와 규모가 달라졌다. 공산측은 국제 적십자사에 포로의 규모를 통보하지 않았고 적십자사 대표의 북한 지역 포로수용소 방문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엔군 사령관은 1950년 7월 비에리(Frank bieri)를 국제 적십자사의 남한지역 대표로 각지의 수용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충분한 협조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포로에 대한 관심과 인도적인 대우를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십자사의 북한 포로수용소 방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⁴⁾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부 시, 공산 측으로부터 국군포로 7142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명시된 서류를 받았다.

이때 포로수용소로 언급된 곳은 제 7 · 8 · 9 · 10 · 11 포로수용소였다.²⁵⁾ 포로수용소별로 배치된 인원은 제 7 포로수용소 831명, 제 8포로수용소 1,591명, 제 9포로수용소 1,528명, 제 10포로수용소 2,235명, 제 11포로수용소 957명 등 이었다. 북한 측이 국군포로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수용소의 숫자와 규모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로를 위문하기 위해 공산 측과 유엔군의 적십자 대표가 각각 포로수용소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때 최초로 국군과 유엔군 포로

23) 배동걸. (1962). 『북한 포로수용소를 찾아서』 . 영창: 원색출판. p.13

24)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희. (1951).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 앞』 .

25) 국방부. ‘포로의제에 관한 참모장교회의 부록’ 1952.1.24. (1994). ‘남북한관계사료집’7.

수용소 위치를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다. 국군포로는 의주 인근 만포, 천마, 강계 등지에 위치해 있었다.²⁶⁾ 공산 측이 판문점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만포에 7개의 수용소와 약 6,000여 명의 포로가 수용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적십자사 대표인 코론이 각 수용소에 있는 포로의 수와 수용소 위치, 규모 등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거절하였다.

부상병을 포함한 국군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화풍, 벽동, 천마, 우시, 외귀, 만복진, 포진, 삵주, 강동, 황주 등이 알려졌다.²⁷⁾ 전쟁 중 전체 포로의 수와 사망자 북한군으로 편입한 인원 등이 세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로수용소와 포로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은 북한의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포로들의 진술과 병상포로, 휴전 후 복귀한 포로들의 증언뿐이다. 그리고 전쟁 중 미군이 운용한 첨보부대에서 각 포로수용소별 규모와 위치에 대한 첨보를 수집했다.

미군은 당시 북한에 있는 유엔군 및 국군의 포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생활한 포로에 의한 정보 이외에 제 6004 공군첩보부대와 제 302군사정보대 연합정찰사령부 등을 통해 포로수용소 위치와 포로규모를 계속 추적했다. 북한 측은 포로들을 포로수용소 외에 민가, 동굴, 계곡, 학교, 공장 등지에 표지도 없이 임의로 포로들을 수용시켰기 때문에 그 규모나 위치에 대한 추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1951년 11월 미 극동 사령부는 북한 지역의 포로수용소는 30 ~ 35개로 추정하였다. 이외 18개 포로수용소는 중국지역에 있을 것이며, 이 가운데 12개 포로수용소는 영구수용소로 추정하였다.

휴전 후 귀환한 포로로부터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주요 포로수용소는 다음과 같다.

제 1포로수용소는 창성군 창리 동남쪽 지역에 미군 등 유엔군 포로장교와 부사관 4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북서쪽에 병사 3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제 1포로수용소에는 유엔군 포로는 1,300여 명 까지 수용된 것으로 첨보수집 결과 알고 있었으나, 1953년 8월 한국과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제 1포로수용

26) 유엔군사정전위원회 본부, ‘제2차 합동적십자사 회의’, 1953.7.31., 8/333, 군사편찬연구소, SN 1918(4)-1

27) 중앙일보사. (1983). ‘민족의 증언’ 3. 군사 제755호(2016.6). p.298

소 방문 당시 영국군 616명, 미군 841명 등 1,457명이 수용되어 있었다.²⁸⁾

제 2수용소는 충만강 인근 충하동, 우시군 평장리, 상동 등에 나누어 있었다. 평장리에는 미군포로 약 4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상동에 위치한 수용소에는 미 공군 장교 150여 명이 있었다.

제 3수용소는 1951년 8월 벽동 수용소 남서쪽 약 22Km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으며, 포로의 규모는 1,000여 명이었다.

제 4수용소는 위원장 북쪽 구읍동, 포로규모는 600여 명 정도였다. 귀환한 포로들의 증언을 보면 1952년 8월 미군 포로 400여 명이 이곳으로 이송되었다.

벽동수용소, 즉 제 5포로수용소는 평안북도 벽동읍 남쪽 8Km 지점 우측 계곡의 화전민 농가에 국군포로들이, 좌측에는 미군 포로수용소가 있었다. 그 길이는 1.6Km, 폭은 0.8Km 규모였다. 중국군은 1차 공세 후 국군과 유엔군의 포로가 급격히 증가하자 보위부장을 후방으로 파견하여 수용소 부지를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벽동 지역으로 선정했다. 최초에는 북한군이 관리를 하다가 1951년 3월부터 중국군이 관리하였다.

제 6수용소는 인근에 폭 60m~70m의 강이 있었다. 70개 동 건물에 국군포로 약 800여 명과 민간인 200명도 수용되어 있었다. 수용소에는 20병상 규모의 의무실이 있었지만 의사들은 의약품이 없어서 진료가 상당히 제한되었다.

제 7포로수용소는 천마광산 입구로부터 2Km 남서쪽에 설치되어 한때 2,700여 명이 수용되었으나, 잦은 포로의 이동 때문에 평균 1,000명이 수용되었다. 1953년 7월에 송환될 당시 장교 출신 120명, 사병출신 포로 75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제 8포로수용소는 평안남도 송호리 탄광에 있어서, 초기에는 탄광지대 골짜기에 동굴을 수용소 시설로 이용하였다. 후에 20여개 동의 목조건물에 국군포로 1,000여 명이 수용 되어 있었고, 영국군 포로도 있었다. 만포진에 있는 제 9포로수용소는 1953년 2월 국군포로 1,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제 12포로수용소는 재동리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1,000여 명 정도 수용되었다. 1952년 12월 제 12포로수용소는 제 9포로수용소로 조정 되었다. 제 12수

28) 배동걸. (1962). 『북한 포로수용소를 찾아서』 . pp.59-61

용소는 선전 센터로 이용되고 근처에 공산 측에 협력한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중앙평화위원회’ 수용소가 있었다.

미군이 첨보팀과 귀환한 포로 및 부상병 등을 통해 1953년 8월에 파악한 수용소의 위치와 규모,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 표 - 4 > 포로수용소 위치와 포로 규모(1953.8.1.)

구 분	위 치	국 적	규 모
1. 수용소:임산동	XE875799 XE879795	유엔군	800명
2	평외동	YF138017	유엔군 200명
	충하동	YF277036	미군 등 135명
	창리	YF200075	미 공군 100명
3	신평동	XE851869	미군 등 800명
	송사동	XE975946	유엔군 213명
4. 구읍동(위원)	BA499304	미군 등	700명-800명
5. 벽동	YE059995 YE064991	유엔군	미군500명-600명 기타유엔군 500명
6. 우하동	YF253059	국군	1,000명
7. 부상리	XE637448	유엔군, 국군	유엔군 장교 30명 국군 600명
8. 당하리	XE635484	유엔군, 국군	미군 200명 영국군 200명 국군 1,600명
9. 풍룡동	BA769375	국군 등	국군 143명
10. 자성	CA032915	국군	1,000명-1,800명
11. 구중동	BA997830	불명	불명
12. 건하동(외귀)	BA777558	미군, 국군	미군500명 국군1,000명
13. 삼고동	BA824509	국군	400명
14. 중리	YD353389	불명	불명
15. 임시수용소 (입송리,직동,강동)	YD553233 YD553234	국군	300명-3,000명

구 분	위 치	국 적	규 모
16. 병원수용소	BA688568	환자	250명
17. 포로수집소(속달리)	BU787055	미군, 터키, 국군	100명-150명, 50명, 180명-200명
18. 판독불가	BA789508	국군	700명
19. 개성	BT855046	미군, 국군	1,000명
20. 재동리	BU596760	국군	1,000명
21. 삼풍	CA900700	국군	800명
22. 신창리동	CA572739	국군	600명
23. 아오지동	FO1508	국군 등	1,500명
24. 상흥리	XE538355	국군	불명
25. 신명동	XE651745	국군	800명
26. 사리원	YC305653	국군 등	250명
27. 안주 석탄광산	YD118734	국군	500명
28. 안주	YD282872	국군	300명-500명
29. 가송리	YD310892	국군	500명
30. 소포	YD362302	국군 장교	140명-400명
31. 소송리	YD369222	국군	150명-1,000명
32. 대타령리	YD353233	국군	570명
33. 옥송동 금광	YD397753	국군	700명-1,000명
34. 판월리	YD415368	미공군, 유엔군, 국군	24명-30명, 34명, 150명
35. 자산	YD5159	국군	불명
36. 마삼리	YD555277	국군	300명

출처 : 軍史. 第75號(2010. 6). 군사편찬연구소. pp.169-170

3.2.1.2. 포로의 대우

북한군은 포로를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법에 의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군은 북한군이 유엔군 포로를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스탈린은 북한에게 북한군이 포로에 대하여 국제법(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있고, 포로 학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용된 포로 중에서 선발하여 포로대우가 양호하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지시했다.²⁹⁾ 그러나 포로에 대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선전과 달리 전선에서 북한군에 포로가 되면 구타와 고문은 물론 살해될 위험이 있었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대병원에 있던 부상당한 국군 15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포로학대를 줄이기 위해 1950년 7월 16일 인민군 문화부대에서 전사, 하사, 군관들이 적에 대한 증오심을 전투 중에 포로 취급 간 실수를 범함으로써 적을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는데 지장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투항하는 적들은 반드시 생포하여 포로로 할 것이며 그들을 함부로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상당한 포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해주며 포로에게 모욕하거나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개인물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³⁰⁾

임시 포로수용소는 민가, 자연동굴·광산 등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포로를 수용하여 급식이나 식수, 위생상태, 의료지원이 개선되지 않았다. 많은 포로가 사망하여 “죽음의 계곡”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광산 포로수용소는 제 5포로수용소에서 80Km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미군, 터키군 및 한국군 등 약 1,600여 명의 포로가 함께 수용 되었다. ‘죽음의 계곡 수용소’에서 1950년 12월 25일부터 1951년 2월 28일까지 매일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희생자가 400여 명에서 많게는 900여 명에 이르렀다.

그 원인은 영양결핍, 치료부족, 질병(설사와 폐렴) 등 이었다.³¹⁾ 이 시기의

29) 로동신문. (1950.7.20.). p.28

30) 문화부대장. (1998). 『지령: 적국와해공작 및 포로취급에 대하여』 1950.7.16. 『해방직후 극비자료』 6,(1998) 고려서림, p33; 『북한군 포로신문보고서』, 『남북한관계사료집』 25,(1996) 국사편찬위원회, p.93

31) 조성훈. (1997).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포로정책 연구』, p.223

매장지는 수용소 인근의 골짜기였다. 벽동 임시수용소에서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포로 30여 명 중 10여 명이 열병 등으로 사망했고, 화풍광산 수용소에서도 국군포로 1,000여 명 가운데 2개월 동안 영양결핍과 발진티푸스 등으로 200~400명이 사망하였다.³²⁾ 이후에도 이러한 희생은 계속 되었다. 1951년 4월 포로가 되어 후방으로 이동되는 과정에 삶은 콩, 수수밥에 소금, 미숫가루 등을 하루에 1번밖에 주지 않아 약 20명이 아사 하였고, 5월 하순에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한날 20~30명씩 죽었다고 한다.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많이 희생된 주요 원인은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질병이나 영양부족이었다. 포로들은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배고픔 이었다고 했다.³³⁾ 한 끼에 잡곡밥 한 줌 정도, 부식은 소금물로 하루에 두 끼 식사로 야맹증, 각기병, 이질이 많이 발생하여 포로들이 많이 희생되었다.³⁴⁾

3.2.2. 북한 정치범수용소

3.2.2.1. 정치범수용소 현황

정부가 공개한 수용소 위치와 현재 수용인원은 평남 개천(14호·1만5000명 수용), 함남 요덕(15호·5만 명), 함북 화성(16호·1만5000명), 평남 북창(18호·1만9000명), 함북 회령(22호·5만 명), 함북 청진(25호·5000명) 등이다. 수용소는 번호가 지정이 되고 관리소로 불린다. 평남 개천 수용소를 ‘14호 관리소’로 부르는 식이다.

북한은 2000년 이전 총 10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했지만 평북 천마(11호), 함남 단천(21호), 함남 덕성(23호), 자강 동신(24호) 등 4개소를 폐쇄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32) 이기봉. (1987). 『장백산에서 임진강까지』, ; 이기봉 증언, (1994.11.11.); 박진홍 『돌아온 패자』 p.70

33) 조성훈. (2010). 『625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사망자 유해 발굴 가능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75호

34) 신창균. (2004). 『북한 11포로수용소 생활 수기』

< 그림 - 1 >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처 : 동아일보. (2009.10.17.)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 표 - 5 > 북한 정치범 수용소 위치 및 규모

소재지	번호	규모	면적	비고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정치범수용소	15,000명	155 km ²	종신 수용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정치범수용소	50,000명	378 km ²	심사 후 출소 '혁명화 구역'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용 '완전통제구역'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정치범수용소	10,000명	549 km ²	종신 수용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정치범수용소	50,000명	73 km ²	유일하게 보위부가 아닌 사회안전부에서 관리
함경북도 회령시	22호 정치범수용소	50,000명	225 km ²	종신 수용
함경북도 청진시	25호 정치범수용소	5,000명	0.25 km ²	종신 수용

출처 : 동아일보(2009.10.17.)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정치범들은 주로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밀려난 고위층이나 반체제 인사, 탈북자 등이지만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모욕하거나 단순한 말실수를 한 일반 주민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수감 절차는 보위부에서 주관하며 재판 없이 끌려간다. 일반 주민은 정보원의 신고로 정치범을 색출한다. 숙청 대상에 오른 당 간부는 허위 사실 유포 후 여론을 조작한 뒤 보위부 조사를 하고 수용소로 데려간다. 수용소 내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유린은 물론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감된 정치범들은 일일 10시간 이상 강제 노동에 동원되며 의료혜택도 제공받지 못한 채 하루 200g 이하의 급식을 받는다. 배급제를 실시하는 북한의 0~4세 식량 배급 기준이 234g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탈출을 시도한 정치범들은 공개 처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³⁵⁾

3.2.2.2. 정치범수용소 실태

1975년부터 2002년까지 18호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 김혜숙의 증언에 따르면 북창 관리소의 거의 대부분은 탄광이고 모든 수감자가 그 탄광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 28년간 북창 관리소에 수감 된 김혜숙씨도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기관지병을 얻었다. 또 철조망으로 전 수용소가 막힌 북한 18호 관리소는 규율 및 기강도 세고,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제한된 데다 탄광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펌프훈련 고문'(앉고서기 반복), '비둘기 고문', '마구잡이 전신 구타' 등 수감자들이 인권이 유리된 상태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소는 철저히 통제돼 있어 정치범들은 탈출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전기 철조망이 4m의 높이로 쳐져 있어서 도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잡히면 무조건 강제처형이다.³⁶⁾

35) 동아일보. (2009. 10. 17)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36) 김혜숙. (2011.2.13). "북창 18호 관리소는 보위부 아닌 경찰이 관할". 리버티헤럴드.

< 그림 - 2 >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 체계



출처 : 웹사이트, (2013.8.27.) 『탈북자가 증언 북 정치범 수용소 경비체계』
<http://news.naver.com/>

3.2.2.3. 정치범수용소 규칙 (14호 수용소³⁷⁾)

첫째 도주해서는 안 된다. 도주를 기도하다 잡히면 즉시 총살 한다. 도주 기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총살 한다. 도주 목격 시 담당 보위 부원에게 즉시 신고 해야 한다. 두명 이상이 모여 모략을 꾸미거나 도주를 기도 할 수 없다.

둘째 세 명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담당 보위부원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즉시 총살 한다. 승인 없이 보위 부원마을로 무단침입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한자는 즉시 총살한다. 담당 보위부원이 정해준 인원 외에 모일 수 없다. 작업 외에는 승인 없이 무리지어 모일 수 없다. 밤에는 담당 보위부원의 승인 없이 세 명 이상 다닐 수 없다. 작업 외에 세 명이상 모여

37) 블레인 하든. (2013). 『14호수용소 탈출』. 서울 : 아산 정책 연구원. pp.296-299

대화 할 수 없다.

셋째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무기류를 도둑질 하거나 소지한자는 즉시 총살 한다.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한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관리소내의 식량을 도둑질하거나 감춘 자는 즉시 총살한다. 관리소내의 모든 기자재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도둑질 한자는 즉시 총살한다.

넷째 보위지도원에게는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담당 보위부원에게 불만을 품거나 함부로 때릴 경우 즉시 총살한다. 담당 보위부원의 지시에 불복종한자는 즉시 총살한다. 담당 보위부원에게 말대꾸하거나 대들지 말아야한다. 담당 보위부원을 만나면 정중히 인사해야 한다.

다섯째 도망자를 보거나 수상한자를 보았을 시 즉시 신고한다. 도망자를 감추어 주거나 보호한 자는 즉시 총살 한다. 도망자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추어 둔자, 음모를 꾸민 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외부의 각종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추어 둘 수 없다.

여섯째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을 발견 시 즉시 신고한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경각성을 높여야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듣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보위부원에게 즉시 신고해야한다. 사상투쟁회의와 생활총화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아비판은 물론 남의 비판을 성실히 해야 한다. 사상투쟁회의와 생활총화에 이유 없이 빠질 수 없다.

일곱째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자산에게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거나 과제를 완수하지 않을 경우 불만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총살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수행이 자신의 죄를 씻는 길이며 용서를 베푼 국가에 보답하는 길이다. 담당 보위부원이 지시한 과제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여덟째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 간에 접촉 할 수 없다. 승인 없이 남녀 간에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작업 외에 승인 없이 남녀 간에 대화를 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이성의 화장실에 드나들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남녀 간에 손을 잡고 다니거나 같은 잠자리에 들 수 없다. 승인 없이 이성의 기숙사 방에 드나들 수 없다.

아홉째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벗어난 의견을 갖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국가와 사회에 자기가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만이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다.

열째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기면 즉시 총살한다. 모든 수감자는 보위지도원을 자신의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하며, 수용소의 10대 규칙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는데 성실한 노동과 규율로 이바지 하여야 한다.



IV. 스트레스 극복 방법

4.1. 스트레스 극복 방법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정신적·육체적 긴장상태를 말한다. 심리학 또는 생리학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 하려는 심신의 변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반응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위협 당하거나 도전을 받을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은 포로로 억류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반응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 져있기 때문이다. 내적인 요소로 공포, 두려움, 걱정, 절망감, 죄책감이 있고 외적인 요소로는 감금, 격리, 언어폭력, 구타, 가혹행위, 고문 등 육체적 심리적 가학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포로 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식수, 급식, 의료, 휴식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해야한다.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는 수용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감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체기능 유지와 심리적 안정 상태 유지이다. 분류는 두 가지로 하였지만 이 요소 들은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효과를 발휘 하여 생존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하였던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포로 상황 발생 시 투쟁과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 호흡이 빨라지고 얇은 숨을 쉬게 된다. 동시에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된다. 또한 신체가 직면한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공급 되는데 스트레스 경험 후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의 소화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위장으로 보내져야 할 혈액이 근육이나 신체 다른 중요 기관으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는 직면한 위협에 맞서거나 도망가기 위해 몸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근육 긴장도가 높아진다.

스트레스가 장시간 지속되어 근육의 긴장도 오래 지속되면 근육통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소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스트레스 극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기능이 유지되면 수용소 내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야한다. 이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도관과의 관계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좋은 상황으로 만듦으로서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4.1.1. 스트레스 극복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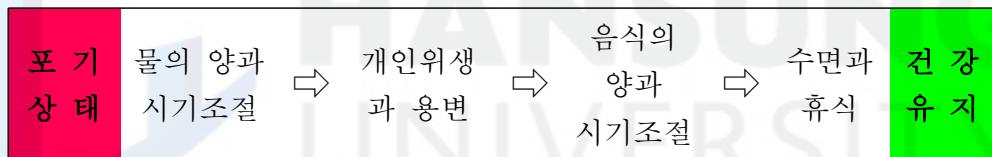
건강이 유지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의 기본인 좋은 주제로 분위기 및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서로 삶의 의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교도관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주변 동료들과의 공감대형성 등 상호 의지를 함으로서 제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위험한 상황을 줄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서 결국 탈출에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내거나 석방 때까지 생존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4.1.1.1. 신체조절

포로 시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기본 원칙이며 건강이 유지되어야만 올바른 정신력이 유지되어 이적 행위를 방지 할 수 있고 차후 탈출 및 석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첫째 수분섭취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물은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분섭취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양에 따라 시기를 조절해야한다. 포로수용

소는 식수 공급이 원활 하지 않기 때문에 확보한 식수는 계획성 있게 섭취해야한다. 둘째 는 위생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수용소는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좋으 장소이다. 따라서 용변도 정해진 위치에서 실시를 하고 씻을수 있는 상황에서는 몸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조치해야한다. 셋째 급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나오거나 배식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변의 풀, 동물, 곤충 등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는 수면과 휴식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적절한 수면과 휴식이 없다면 행동에 신체는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 상태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는 곧 생명유지의 의지를 박탈하게 되어 생명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기 쉽다.

< 표 - 6 > 스트레스 극복원리



출처 : 스웨덴 SERE 학교 팜플렛 자료

4.1.1.2. 의사소통

신체조절을 위한 조치 후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 할 수 있고 포로수용소 내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원칙은 대상자는 포로수용소 내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도관을 포함한 동료 모두가 의사소통의 대상자가 되어야지만 또한 고립된 상황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삶의 의지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소통을 할 때는 좋은 주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 가족이라든지 동일관심사인 스포츠, 취미 등에 대한 이야기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한다.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주제 등 난해하고 동일성이 낮거나 적국에게 부정적인

대화 주제는 오히려 집단을 위해 시켜 폭력, 고문 등의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다.

4.1.1.3. 교도관과의 관계형성

전시 포로수용소의 교도관들은 전문 포로수용소 운용 인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술로 교도관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을 수도 있다. 관계 형성을 좋게 하기 위한 요소는 적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문화, 사상 정치, 종교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일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하며,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도와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한다. 필요하다면 아부와 아첨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적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포로는 주도권이 없다. 아무리 아군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 한다 해도 그것은 적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둘째 논쟁을 하지 말아야한다. 교도관의 기분을 일부러 거슬리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교도관은 내가 생존하는데 현재 가장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야하며, 항상 공손하게 행동해야한다. 교도관은 우리 입장에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넷째 교도관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순간이 있겠지만 온전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고 생각해야한다.

이라크 전쟁 당시 사례를 보면 포로가 된 스웨덴군 피터 무어는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미국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또한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포로수용소 내에 컴퓨터를 수리해 줬으며, 교도관과 같은 생일이라는 공통관심사를 이끌어 냈으며 이슬람과 미국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 하곤 했다. 교도관이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 등 리마 중후군의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온전한 상태에서 석방이 되었다.

4.1.1.4. 동료와의 관계유지

서로 이야기 하라. 포로수용소 내 동료들과는 기회가 되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가까이 앉아서 친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동료들과의 이야기가 교도관에게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동료들이 무엇을 잘 하는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한다. 유사시에는 결정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서로 지원해서 혼자가 아니라 인식을 서로 공유해야한다.

4.2. 스트레스 극복 요령

4.2.1. 단기목표 설정

매일 같은 공포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 설정이 삶의 의지를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 하루 또는 주간 등 짧은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예를 들어 “오늘은 교도관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겠다.”, “물은 몇 컵 이상 먹어야겠다.”, “팔굽혀 퍼기는 몇 개를 한다” 등 실현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달성 할 수 있는 목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게 되면 달성 할 가능성성이 낮아지고 우울증이나 절망감으로 이어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짧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만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건강한 정신력으로 삶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개인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4.2.2.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

4.2.2.1. 복식호흡

스트레스를 지각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호흡이 빨라지고 숨을 얇게 쉬게 된다. 긴장하면 가슴으로 숨을 쉰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고 공기를 벗속까지 깊이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하면 신체적인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체적 긴장이 줄어들게 되면 호르몬 분비를 하기 위한 에너지가 감소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스트레스 감소에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유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2.2.2. 규율 규칙

포로수용소 내에도 하루 일과가 있다. 노역과 작업, 사상교육 등 일정대로 움직여야 한다. 포로수용소 내에서 정해진 일과를 지키고 규율을 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과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일과 이외에 개인만의 규칙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손을 씻는 등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다든지, 비교적 정해진 시간에 용변을 본다든지, 규정된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 및 명상 등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개인만의 규칙을 정하여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하고 규율과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여 휴식과 수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교도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규칙을 위해 노력하고 달성하기 쉽기 때문에 단기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주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결국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를 발휘한다.

4.2.2.3. 명상

포로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감소 방법은 명상이다. 휴식 간 또는 취침 전에 스스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인이 적절한 규칙만 잘 정한다면 절대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불비한 여건 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상대적으로 최대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는 단기간에 완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도 방법을 터득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접목시켜 습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명상은 휴식과 같이 마음을 쉬고 몸을 편히 하여 심리적 긴장을 이완뿐만 아닐 신체적 긴장을 완화 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것은 스트레스의 주요 증상인 마음과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이다. 특히 명상의 비분석적인 자세는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명상 과정을 보면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사고와 행동에서 부적응적인 조건화를 해제한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각성 유지, 주의 훈련, 탈자동화 등의 과정을 통해 부적응적인 행동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막아 준다. 명상을 하면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게 됨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³⁸⁾

명상을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은 명상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세타파(theta wave)를 경험한다. 많은 명상가들이 자신을 향해 의식의 초점을 옮기기만 해도 세타파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세타파란 각성과 수면 중간에 있는 명상 상태를 말한다. 세타파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정보에 접근하며, 이때 창의적인 생각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한다.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해결 방법을 발견하여 해결 할 때 세타파가 나타나는데, 이는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어 긴장이 이완됨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명상의 생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스포츠 경기에서 기록이 우수한 사람은 경기 중 명상적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명상적 상태를 “변경된 의식대 (the zone of altered consciousness)” 또는 “존(zone)”이라고 부른다. 운동 경기 중 세타파 발생 상태에 이르면 실패, 고통, 피로감에 따른 공포감 등이 사라지고 최고 수준 상태의 쾌감이 뒤따른다.

명상과 뇌 영상에서는 명상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뇌 활동이 줄어들지만, 자율 신경계 활동을 조정하는 뇌 부위와 주의 집중과 관련된 뇌 부위는 활동성이 높아진다. 명상을 한 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명상 상태 간 정리된 안정된 뇌 활동이 다시 역동적인 뇌 활동으로 바뀐다.

38) 김정호, 김선주. (2002).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 서울: 시그마프레스

이러한 안정 동요 현상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과 활동이라는 두 가지 현상은 개인의 건강과 안녕 즉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건이다. 명상을 통해 안정 동요의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암 증후, 월경 전 통증이 경감된다고 하는 임상 보고가 있다³⁹⁾.

산화질소는 명상 동안 세타파 출현과 관련 있다고 밝혀졌다. 산화질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은 개인의 뇌와 몸속에서 일어난다. 산화질소는 분자형태로 몸속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체성 물질이다. 즉, 활성산소기(radical)이며, 메시지를 운반하는 물질로서 바람처럼 온 몸과 중추 신경계를 흘러 다닌다. 연주자, 운동선수, 연설가들이 최고 수준의 순간에서 느끼는 “만족감” “절정감”과 같은 심리적 경험은 산화질소와 관련이 있다.

특정한 대상을 고정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명상을 실시한다. 명상은 정해진 자세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앉은 자세에서 많이 한다. 등을 펴고 어깨를 적당히 이완시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연스럽게 호흡 하며, 인위적인 호흡으로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스스로 호흡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실시한다.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호흡에 집중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다시 호흡이 안정된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 뇌의 왼쪽 전두엽이 오른쪽보다 더욱 활성화되는데, 이는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명상은 호흡이 조절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며, 이는 신체를 이완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한다.

4.2.2.4. 운동(신체훈련)

포로수용소에서 운동은 노동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고 그로인한 신진 대사를 원활히 하여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식시간이 부여되면 명상과 더불어 가벼운 운동을 계속해야한다. 포로수용소 내에 있는 동안

39) 장현갑. (2004). ‘스트레스 관련 질병 치료에 대한 명상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9(2), pp.471-492.

은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협에 대응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신체를 민첩하게 움직여야 함에 따라 근육의 긴장도는 상당히 높아진다. 스트레스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지 못해 근육의 긴장도 오래 지속되면 근육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신체기능유지에 실패하여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완을 위한 운동을 하여야한다.

4.2.2.5. 정보제공통제

포로수용소 내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 교도관과의 관계형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교도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게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 포로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생존 확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3가지로 분류하여 필요한 상황에만 제공되어야 하고 절대로 제공되지 말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첫째 보편적인 일상 정보이다. 이는 공개가 되어도 위험도가 낮은 정보로서 가족관계, 주소, 취미 등 개인적인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주의를 요하는 정보들이다. 이는 공개가 될 경우 개인 추궁 및 집요한 신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부대 임무 세부사항, 정치, 사상, 종교, 전우의 현재 상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이정보가 공개 될 경우에는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군사적/ 외교적으로 국가가 전쟁의 정당성을 잃게 되거나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로서 개인적으로는 탈출계획, 현지 연락책 및 조력자 등이 있고, 국가적으로 군사 및 국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세부 임무, 외교적 비밀 등 고가치 비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3. 한국전쟁 중 스트레스 극복 사례

4.3.1. 미군과 터키군의 포로수용소 사례

신체적 기능유지와 의사소통을 통한 조직유지로 집단 포로생활 극복 및 생활화 사례이며 장소는 벽동(신의주 동북방 100Km) 제 5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국전쟁 중 포로로 수용된 미군은 포로수용소에서 50%가 죽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터키군 포로는 한명도 죽지 않고 243명 전원이 생활하였다. 포로수용소에서 터키군 포로들은 아무 불평 없이 알라신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준 것을 받아먹었고 손에 닿는 대로 채소나 나물조각들을 먹었다. 그러나 미군포로들은 영양결핍에다 각종 질병이 겹쳐 죽어갔다. 제 5포로수용소에서 미군포로들은 중공군 감시병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한 일등병을 책임자로 선출했다. 그리고 미군 하사관이나 군의관 그리고 군목들(장교들은 별도 수용)은 환자들을 간호하고 이들의 옷을 뺏아주며 맷나무를 해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병들에게 사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⁴⁰⁾

이러한 사정을 할 때면 욕을 하거나 빙정거리며 대꾸를 듣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터키군 포로들은 달랐다. 반드시 그들의 선임자가 지휘했고 환자를 반항죄로 수용소 당국에 붙잡혀 가면 자동적으로 다음 선임자가 지휘를 맡았고 지휘자가 바뀌어도 상황은 같았다.

터키군인들의 상관에 대한 복종심은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전통적 경로사상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장교들은 이러한 위계질서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절대적 위치에 설수 있도록 평소의 병영생활을 통해 부하들을 가르치고 또한 솔선하여 모범을 보였다. 그들은 전장에서 영예롭게 전사하면 사후(死後)에 영광의 자리가 신에 의해 주어진다는 회교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신앙이었다. 또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무아의 경지에서 전개되는 백병전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산화하는 것을 군인의 최고 영예로 아는 엄정

40) 육군본부. (1983). 『전쟁사 사례연구』 . pp.214–215;
웹사이트. (2008). 『포로수용소에서의 <生存法>』 . <http://blog.naver.com/shim>

한 군기와 사생관 이었다.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들은 포로들의 재교육을 실시했고, 그 방법은 세뇌라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교육방식으로 행해졌다. 즉 허위선전의 반복과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꾼 폭력과 협박으로 가치관의 전도를 시도했고, 현 정부의 관리, 자본가, 그리고 부유층들을 증오하도록 만들려고 공작했다. 미군들은 공산주의자 설교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반복되는 선전 때문에 그들 중 약간은 사상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회교 신앙에 젖어 있으며, 엄정한 군 기율 속에서 단련된 터키군인들의 머리에는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이나 군 기율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생각이 파고 들어갈 틈은 전혀 없었고 “알라신”에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들의 강한 긍지와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⁴¹⁾

포로수용소에서 미군포로들이 군기의 소멸, 사상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력 약화와 극도의 영양실조로 인한 육체적 쇠약과 질병 때문에 많은 인원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터키군 포로들은 엄정한 군기와 신앙심으로 유지되는 강인한 정신력과 극한 상황 하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술을 충분히 발휘하여 포로수용소의 고통을 이겨내고 전원이 살아서 돌아왔다.

4.3.2. 사례분석

위의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래전의 사례이지만 지금의 포로 시 행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켰다.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양분을 섭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신앙심에 기초한 명상을 통해 정신을 유지하였으며, 상호 엄격한 군율을 지킴으로서 규칙과 규율을 스스로 지키고 그 와중에 계급에 간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는 등 결과적으로 포로 시 행동에 대한 기본 수칙을 모두 지킴으로서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 결국은 243명 전원이 생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41) 웹사이트. (2008). 『포로수용소에서의 <生存法>』 <http://blog.naver.com/shim>

4.3.2.1.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노력

터키군은 포로수용소 내에서 교도관 즉 공산주의자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였으며 양이 부족하여 주변의 곤충을 잡아먹는 등의 조치로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었다. 반면 미군은 음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먹지 않았고 이는 결국 영양결핍으로 이어져 육체적 쇠약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러 미군 포로의 50%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4.3.2.2. 기도와 명상을 통한 강한 삶의 의지

터키군은 별도의 명상 방법은 없었으나 종교를 통한 자기내면의 정신력을 강화하였고 항상 알라가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삶의 의지를 잃지 않았다. 메카를 향해 절을 하는 종교적 행동은 명상의 일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희망을 놓지 않는 계기가 될뿐더러 이러한 행동이 신체적 기능유지에 도움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 될수 있었다. 반면 미군은 오로지 개인이 필요한 사항에 집중하였고 삶의 의지를 이어나갈 그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정신력은 물론 신체적 기능 유지도 할 수 없었다.

4.3.2.3. 의사소통을 통한 조직유지

터키군은 철저하게 조직을 유지하며 상호 소통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군기를 유지하며 살아있는 조직으로 유지한 반면 미군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계급체계가 무너지고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해되었다.

V. 결 론

5.1. 결론 요약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지중심으로의 특수전부대의 침투는 불가피하다가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립무원의 적지중심에서 특수전부대가 포로가 될 확률은 그 어떤 부대보다 높을 것이며 생존 했을 때의 가치는 가치로 더 높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주요 국가들은 특수전부대원에 대해 포로 시 행동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실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일반부대에서도 포로 시 행동에 대한 교육을 전 병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포로에 대한 대우를 한국전쟁 당시와 현재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분석해보면 포로를 제네바 제3협약(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로 시 행동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한다. 포로 시 행동해야 하는 많은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이론 분야가 있지만 포로가 되었을 경우 포로는 포로수용소 내에서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생존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포로 시 행동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것은 공산권 국가 특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한국 전쟁 당시 포로수용소 운용실태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현재 그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운용 실태가 너무나도 비인권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비인간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포로가 아닌 주민에게도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볼 때 전시 포로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역사

적 사실로 볼 때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수많은 포로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영양결핍과 열악한 위생 환경, 의료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교도관의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으로 포로들은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해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전시 우리가 북한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상상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과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하여야 만이 생존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투쟁과 도피 반응을 이해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게 되면 신체 기능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인지하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스토훌름 증후군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교도관에게 종속되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심리적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은 이러한 생리학·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포로수용소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스트레스 원리인 신체조절, 의사소통, 교도관과의 관계유지, 동료와의 관계유지라는 요소를 도출하였고, 스트레스 극복 방법으로는 의미 있는 행동 즉, 복식호흡, 단기목표 설정, 명상, 운동, 정보제공통제 능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5.2.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전시 대한민국 특수전부대가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포로 시 행동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60여 년간 일부 국지전을 제외한 전쟁이 없었고, 그로인해 포로가 발생할 사건이 없었다. 포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포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는 바 관련 자료와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획득한 포로에 대한 관리 및 취급에 대한 관련 논문과 자료는 상당수 있었으나,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경

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매뉴얼은 국방훈령 1886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진수칙에 의한 정신적 무장을 통한 행동강령 준수가 전부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원들의 포로에 대한 생각은 “포로로 잡히지 않으면 된다.”라는 소극적이고 맹목적 긍정의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도 제네바 제 3협약에 의거하여 인권적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포로 시 행동에 대한 중요도와 연구의 필요성이 약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준비나 분석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 데이터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포로에 대한 의식은 포로로 잡히면 그것은 수치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는 유교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실제 훈련을 진행하면서 포로 시 행동에 대한 심리적 현상, 생리적 현상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본 저자가 스웨덴 SERE 학교에서 교육은 받은 결과를 기초로 포로가 되었을 경우 개인이 가져야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요소를 도출 해 봤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과 사례를 기초로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사례만 가지고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모두 대입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군인의 특성과 능력을 기초로 여러 데이터를 종합 및 분석하여 북한의 포로취급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연구하여 그에 대응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군 전체의 설문을 통하여 포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포로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전략적 목표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

5.3. 향후 연구 방향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은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PKO(Peace Keeper Operation : 평화유지 작전), MNF(Multi Nation Force:다국적군) 임무 등에 참여하고 있고, 이는 부대 및 개별파병의 형태로 참여하여 분쟁국의 정전을 감시하고, 재건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이바지 하고 있다. 대부분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며 이곳은 테러나 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 는 작전간 전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포로로 억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이다. 전시 북한의 포로수용소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포로 시 행동 교육도 필요하지만, 중동지역의 사례와 특징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서는 해외파병부대원의 테러 단체에 의한 포로 시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군인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넘어서 민간인 즉, 종군기자, 민간인 여행객, 기업가 등에게 국가 차원에서 그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김정호, 김선주. (2002).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 서울: 시그마프레스.
- 두산백과. (2016). 『리마 신드롬』 .
- 배동걸. (1962). 『북한 포로수용소를 찾아서』 . pp.59–61.
- 블레인 하든. (2013). 『14호수용소 탈출』 . 서울 : 아산 정책 연구원.
- 시사상식사전. (2016).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
- 신창균. (2004). 『북한 11포로수용소 생활 수기』 .
- 심리학용어사전. (2014). 『투쟁–도피 반응 – fight or flight response –』 .
- 심리학용어사전. (2014). 『스톡홀름 증후군 – Stockholm Syndrome –』 .
- 윤가현 등 14인 공저. (2011). 『심리학의 이해』 . 서울: 학지사.
- 앤디 맥나브. (2003). 『SAS정찰대의 전투수기』 . 병학사.
- 이기봉. (1987). 『장백산에서 임진강까지』 .

2. 학위 논문 및 보고서

- 김영석. (200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
- 유엔군사정전위원회 본부. (1953). 『제2차 합동적십자사 회의』 , 군사편찬연구 구소 .
- 육군본부. (1983). 『전쟁사 사례연구』 . pp.214–215.
- 장현갑. (2004). 스트레스 관련 질병 치료에 대한 명상의 적용 『한국심리학 회지 : 건강』 . 9(2), pp.471–492.
- 전우. (2016). 『한국전쟁 참전 중국지원군 포로 연구』 .
- 주수기. (2004). 인질테러 해결을 위한 인질협상. 『분쟁해결연구』 2(2), pp.69–102.
-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희. (1951).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 앞』 .
- 조성훈. (1997).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포로정책 연구』 . p.223.

- 조성훈(2006). 『한국전 국군포로 실태분석』 .국방부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
- 조성훈(2010). 『625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사망자 유해
발굴 가능성』 .
- 국방부. (1994) ‘포로 의제에 관한 참모장교회의 부록’ 1952.1.24.. 『남북한
관계사료집』 7.

3. 기 타

- 국방부. (2010).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지 제 75호.
- 국방부. (2016). 부대관리훈령 제1886호 제3편 제1장 제15조, 『군진수칙』 .
- 김혜숙. (2011). 『북창 18호 관리소는 보위부 아닌 경찰이 관할』 . 리버티
헤럴드.
- 동아일보. (2009.10.17).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
- 로동신문. (1950.7.20.). p.28.
- 중앙일보사. (1983). ‘민족의 증언’ 3. 군사 제755호(2016.6). p.298.
- 정경호(귀환포로)증언(2002.8.7.). 군사편찬연구소.: 육본, 『포로수용소』 ,
pp.58–68.
- SWEDEN SERE School 교육 팜플렛. (2015). 『Resistance Exercise
Directive SERE C』 .

4. 웹사이트

- 위키백과. (2016). 『스탠퍼드 감옥 실험』 . <https://ko.wikipedia.org/wiki/%EB%85%A5%EC%9D%BC%EC%8A%A4%ED%8A%B8>
- 웹사이트. (2008). 『포로수용소에서의 <生存法>』 .
<https://blog.naver.com/shim10603016/>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of poisoner(detainee)
in war and conflict areas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action of captivity survival–

Lim, hyun-soo
maj.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e method of increasing the survival rate by reducing the stress and using proper acts based on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until release or escape from a POW camp when a special operation unit become POW while he infiltrates into enemy's area to achieve a strategic goal.

If some one become a POW, he should reduce the stress through countermeasures based of understanding about physiological response – fighting and escape reactions. In addition, the guards should be prevented from brainwashing or advocating for them. Rather, they should know how to lead them in the direction that he want them.

In view of the fact that many human trafficking victims have occurred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many human trafficking victims have taken place in the same manner, It is necessary to be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not guarantee treatment and rights to the people. Therefore, ROK military special forces need a training system that can cope with the worst situation when they become prisoners. For this,

training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most probable situation. For this, it is important to approach based on necessary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between prisoners' behavior.

Stress should be reduced to maintain physical function. In order to reduce the stress, there must be an individual method through meditation, exercise, breathing, etc.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guards must be maintained through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mental power so as not to fall into the phenomenon of advocating them, namely Stockholm Syndrome, by going to an attempt to brainwash North Korean thought by the prison guards of North Korean prison camps. It should also be trained in the usual ways to identify the causes of stress and overcome them.

There is no right way to act in captivity. However, if individuals know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ir physical function and not lose their mental state, they can increase the survival rate of individuals.

It is not easy to draw clear debate on this issue due to the lack of open source data and research on prisoners' behavior. This paper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inciples of struggle and escape reaction caused by extreme fear and fear in the case of captivity, thereby reducing the stress and form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rison guards, I hope that it will be a basic research that will preserve the noble life, create favorable conditions in the exchange of prisoners, and inform the actual situation of the enemy after the release or releasing the enemy.

【keyword】 POW, prisoner, forces, stress, poison, Stockholm Syndrome